

# 총선,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여야 투표 독려 총력전

광주 96·전남 298개소서 실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지참 전국 어디서나 가능  
각 정당 조직 총동원 기선 잡기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됨에 따라 각 후보 캠프들이 사전투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관련 기사 3·4면>  
지지층의 사전 투표 참여가 이번 총선의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광주·전남 394개소=4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광주 96개, 전남은 29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국적으로는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선관위, 지자체 등과 함께 사전투표 전날인 이날 모든 사전투표소에 대해 탐지장비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정밀점검했다. 최근 전국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각 정당 후보들 투표율 높이기 총력전=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지층의 사전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진영에서는 사전 투표를 통해 승기를 굳힌다는 방침이다.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총선 투표율도 동반 상승, 고공 행진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은 당 조직 등을 토대로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및 무소속 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 바람속에서도 그동안 다져온 조직을 총가동하면서 사전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와 SNS 등을 통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이 기이하게도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 결과, 광주의 성장은 멈췄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을 떠나 어떤 후보가 광주의 발전을 견인해 낼 인물인지 더 숙고해서 투표하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8명 후보들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투표율이 무려 62.8%다. 21대(26.8%)보다 두배가 훨씬 넘는다는"며 "이것이 민심이 심판만이 답이다. 4월5일과 6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 사전 준비의 날이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도 이날 광주를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더 강력하게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돌보는 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청년 유출과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한 광주를 되살리기 위해 일자리와 교통·문화·교육·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들은 이후 전남대 후문과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1913광주송정역 시장 등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이 사전투표 전날 광주에서 대대적인 유세를 벌인 것은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이 불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당 광주지역 후보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전라 지역으로 선정한 광주 북구율의 윤민호 후보 당선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 민심은 이미 야권 압승이 예견되고 있다"며 "광주에서도 부산, 울산처럼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광주 사전투표율은 32.18%였고, 전남의 투표율은 35.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현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尹 "의사증원에 전공의 입장 충분히 존중"

용산 대통령실서 박단 '전공의 대표' 140분간 면담  
대통령실 "열악한 처우·근무여건 개선 등 의견 교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전공의 측 대표를 만나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내용을 전달하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면담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 20분간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면담 참석자도 최소한으로 제한한 데다 면담 시간도 2시간 20분으로 비교적 길었던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놓고 솔직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박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존중

해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를 시도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보다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반발의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를 만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대화 의사를 제안하고, 이날 박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 또 지난 1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천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연일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노 티투 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면  
복스 - '항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좋으니까' ▶14·15면  
KIA, 챔스필드서 삼성과 3연전 ▶18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간원 인삼 사보닌 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피부 실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3일